

## 경기·강원지역의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이용사례

The Case Study on Local Food Utilization in Gyeonggi and Gangwon area

김영\* · 김양숙 · 김경미 · 김기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Young, Kim\* · Yangsuk, Kim · Kyungmi, Kim · Gichang, Kim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최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우리농산물’ 등으로 표현되는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먹거리는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생산물을 우리가 섭취한다는 것이다.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과거에 비해 수송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송비용, 혼잡비용이 상승하고, 농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식품안전성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에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는 일부 생산자 조합 또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기지역은 평택시의 평택푸드추진단과 경기클린팜당이며, 강원지역은 철원군의 친환경 생산단체와 친환경영농조합의 사례이다.

평택푸드추진단은 Super Oning(쌀), 미한우라는 브랜드 런칭(교육청 지원으로 학교급식 공급), 학교는 96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방식은 농협과 계약재배 방식이다. 어린이 집 등부터 우선 공급하는데, 평택시와 협의회가 공동 실천사업으로 ‘튼튼식단’을 만들었다. 경기클린팜당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는 아침급식을 추진하며, 팜당 8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 계약 재배 형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어려운점으로는 작물들이 같은 기간에 생산되는 것으로 해결 해야할 문제이다. 경기도는 생산자, 영양사, 도청, 교육청으로 구성된 가격결정협의회가 평균단가를 정하고, 그 가격에 최소 이익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의 친환경생산단체와 영농조합은 쌀, 잡곡을 시작으로 과채류, 특용작물, 김치, 기름류까지 넓혀가고 있는 단계이다. 철원 농산물의 80% 이상은 매장 납품에 소비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전체 매출의 10~15% 정도 차지한다. 취급하는 품목은 72개 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목이 부족해 80% 이상이 쌀을 취급하고 있다.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창기 교육을 많이 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홍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